

# 11조8천억 투입 '일자리' 65만개 만든다

##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내년 일자리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데도 유독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고용 분야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11조804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0조9620억원)보다 7.7% 늘어난다. <장시간 근로관행 뚫고쳐 일자리 나누다>=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이 전액 지원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관련 예산으로 101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기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분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늘어난다. 모든 사업주는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받아 왔는데, 그 한도가 월 80만원으로 오른다. 고대 근무제를 개편한 모든 기업에는 신규 채용 1명당 월 90만원 한도로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교대제 개편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 사업장당 최대 2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재정투입 일자리 늘린다>=취업·창업교육 강화=내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 64만6000개를 만든다. 올해

(60만1000개)보다 4만5000개 늘어난 규모다. 64만6000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18만5000개), 노인일자리(31만7000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무려 25.8%(6만5000개) 증가한 것이다. 퇴직이 본격화한 베이비부머의 경로를 활용할 일자리를 1만5000개 신설하고 광역시 단위로 노인취업 교육센터도 운영한다. 공공부문 채용도 대폭 늘린다. 경찰관 4000명, 소방공무원 4000명, 사회복지 전담인력 1177명, 교원 980명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1050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예산 221억원을 배정한다.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 사업에는 47억원을 지원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올해 498억원에서 내년 762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연장도 지원한다. 청년 연장 시 사업주 부담분 지원액을 올해 420억원에서 내년 53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지원도 114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 무상교육·반값등록금 연기·축소

### 교육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 세수 부족으로 시행이 연기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교육 분야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5000억원가량을 요구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렸다. 교육부는 내년에 읍면·도시지역에 무상교육을 하고 도시 지역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을 유보하되 세입 확충계획과 투자계획을 검토하고서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공약도 내년 시행이 무산됐다.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장학금과 등록금 인하 등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해 총 대학 등록금수입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애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 국가장학금은 3조1850억원 반영되는 데 그쳤다. 요구액보다 8150억원 줄었다.

## 1인당 稅 부담 550만원 추산

### 올보다 10만원 늘어



내년 국민 1명이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명목 경제성장률 6.5%, 실질 경제성장률 3.9%가 반영됐다. 여기에는 지하경제양성화 등 공약가계부상 국세수입 재원 7조6000억원 마련 계획이 처음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세수 평균크레딧이 7조~8조원에 달할 정도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내년 세수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출한다. /연합뉴스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공약파기 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공약·민생·미래 포기 '3포 예산' 비판

### 박지원 "박대통령 기초연금 등 후퇴 국민에 사과해야"

민주당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과 대선공약과 다른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발표 간담회'를 열고 "공약 포기, 민생 포기, 미래 포기 등 '3포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뒤집은 거짓말 예산"이라며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예산안에는 별도의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공약 뒤집기에 이어 예산까지 편성하지 않는 이중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

면 1.2조원의 예산 추가가 필요한데 4100억원만 추가해 사실상 실현을 포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도 미반영한 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또 "일방적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은 위기에 놓였지만 예산안에서 지원 대책은 미흡했다"며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민생·복지 공약 후퇴'라고 평가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당은 복지예산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 행복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이제 와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 등 공약 포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쌀직불금 규모 2600억 늘어

### 농가 소득 안정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 규모가 내년에는 26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올해 13조5268억원보다 0.1% 증액한 13조5344억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쌀 산업 분야에 4조7718억원, 원예·특작 분야에 2조1913억원, 축산분야에 1조5047억원, 식품 분야에 7714억원, 공용 등 기타 분야에 4조295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쌀 변동·고정 직불금 등 직불금 예산은 올해 1조6159억원에서 내년 1조8811억원으로 늘었다. 겨울철 논에서 보리·호밀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에 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료 구매 지원 예산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쌀 산업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약 20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6차 산업화 지구 3곳을 개발하는데 18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6차 산업은 단순 생산(1차)에 그치지 않고 제조·가공(2차)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3차)를 연계한 융복합(1차+2차+3차) 산업을 뜻한다. 농촌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개축해 공동목욕탕으로 활용하는 '장날 목욕탕' 사업예산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연합뉴스

## 軍 상병 월급 13만4600원으로

### 국방분야

내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인상되고 육군 장병예견 처음으로 '운동모'가 보급된다. 정부의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2% 증액된 35조8001억원으로 편성됐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전력운영비는 3.6% 늘어난 25조1019억원, 방위력개선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등이 반영되면서 5.8% 증가한 10조6982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600원으로 15% 오른다. 육군 장병이 체육 및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모는 내년 입대자 22만 3178명에게 지급된다. 장병 기본급식비는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3.3% 올랐고,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는 하루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 인상된다. /연합뉴스

#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 |  |   |
|--|---|
| <b>지상5층</b> 501호 내과<br>502호 치과         | <b>지상6층</b> 601호 안과<br>602호 이비인후과       |
| <b>지상7층</b> 701호 성형외과<br>702호 산부인과     | <b>지상8층</b> 801호 피부, 비뇨기과<br>802호 영상의학과 |
| <b>지상9층</b> 901호 한의원<br>902호 소아, 청소년과  | <b>지상10층</b> 1001호 재활의학과<br>1002호 가정의학과 |
| <b>지상11층</b> 1101호 신경외과<br>1102호 정신의학과 | <b>지상12층</b> 1201호 정형외과<br>1202호 향문외과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 |                                 |                          |
|---------------------------------|--------------------------|
| <b>분관 1층</b> 유니클로등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 <b>분관 2층</b> 브랜드피자 분양중   |
| <b>별관 1층</b> 브랜드커피숍 및 미용실 분양중   | <b>별관 2층</b> 한정식 분양중     |
| <b>별관 3층</b> 일식 분양중             | <b>별관 4층</b> 패밀리레스토랑 분양중 |
| <b>별관 지하</b>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                          |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